

# 도의회, 집행부와 대립각... 변화 몸부림?

전남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무부지사에게 불신임 결의안 발의를 추진, 강경 대응에 나섰다.

또한 농수산환경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지금까지 실·국단위로 진행됐던 업무보고를 과(課)별로 강화하는 등 제8대 의회 2년차에 접어들면서 국정 감사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홍이식)는 10일 상임위원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상변 정무부지사에게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키로 하고 이를 의정단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경제관광문화위는 지난 9일 'F1(포플러 원)지원특별법' 제정과 부지 확보 지연에 따른 향후 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 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부지사는 '도의회 업무보고는 실·국단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등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 경제관광위 출석 불응한 정무부지사 불신임 검토

## 농수산환경위 업무보고 실·국단위서 과별로 강화

이에 따라 경제관광문화위는 오는 13일 제2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3명의 의원이 5분 발언 등을 통해 이 부지사의 출석 불응을 문제삼은 뒤 공식 사과나 재발방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관광문화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민주·해남 2)은 "지방자치법과 전남도의회 회의규칙에 '중대 사안'의 경우 부지사를 상임위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의장의 결재를 받아 요구한 것"이라며 "특히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F1지원특별법 제정이 6월 임기국회에서 무산되고 부지 확보도 지

연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무부지사의 입장을 듣는 것은 도의회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도민들이 꼭 알아야 할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지사가 출석을 거부, 정당한 의정활동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남도측은 "상임위에 부지사가 직접 참석해 업무보고를 한 선례가 없다"며 "F1특별법과 관련해 주무 국장인 기업도시기획단장이 보고해도 되는데도 무리하게 부지사를 출석시키려 한다"고 반박했다. 부지사가 몇차례 간담회를 통해 추진상

황을 설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의안 발의여부는 전남도의 대응과 도의회 의정단 및 집행부간 수위 조율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최악의 경우 사상 초유의 정무부지사 불신임 결의안 발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농수산환경위원회(위원장 강종문)는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업무보고를 실·국단위에서 과(課) 단위로 전환해 밀도 높은 질의·답변을 나눴다. 이 때문에 사흘동안 진행된 농정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가 밤 11시 무렵까지 계속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보다 밀도있는 업무과목이 이뤄졌다"는 평가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가 별도로 있는데도 마치 감사와 같은 업무 보고를 거쳤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광주와 영화 '화려한 휴가'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지난 8월 5~18을 소재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 시사화 현장.

기자 뒷쪽에 앉은 5월 유족들은 대구 출신인 김지훈 감독이 '영화를 보신 어머니께서 광주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할 때부터 훌쩍이기 시작하며 눈물 내내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앞자리의 20대 여성 역시 몇몇 장면에서는 통곡하다시피 하며 영화를 보고 있었다.

박수와 함께 영화가 끝나고 기자들이 '5월 어머니'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몇몇 사람들은 말을 아끼며 자리를 뒀다.

"영화가 막 끝나 정신이 없었죠. 27년만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행여나 말 한마디 잘못해 누가 뭐라고 할까 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자식 보낸 우리 입장에서는 영화가 좀 더 사실적이었으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봐야하니까 이해 할 수 있죠. 영화를 만들어 줘서 고맙고 감사하죠."

시사회 후 사석에서 만난 어머니들은 이 영화가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과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자리를 함께 한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어렵게 아이가 탄생했으니 이제 예방접종을 해주고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타 지역 사람들이 이 영화를 꼭 보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 이날 시사회에 모인 광주 사람들은 영화 '화려한 휴가'를 '영화'로만 볼 수 없었고, '관객'으로 남을 수도 없었다.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주인공 민우의 마지막 대사는 어쩌면 27년간 광주가 소리 높여 외치고 싶었던 '단 한마디'였을지도 모른다. 영화를 본 시민들 역시 이 영화가 그 '진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길 바랐을 것이다.

영화 보는 내내 전두환 전대통령의 호를 떠 '일해공원'을 만들고 있는, '5·18'의 진실에 눈 감아버린 지역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광주 땅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죽음만이 기다리는 도청에 남겨 두고 마지막 가두 방송에 나선 신애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광주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외칠 때, 그 호소의 대상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5·18 기간이면 금남로 옛 한국은행 앞까지 가득 매웠던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5월은 박제된 채 많은 이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지 않았던가.

어쩌면 '화려한 휴가'는 광주가 부르짖던 '5·18 전국화'의 촉매제가 될지 모른다. 그 전에 영화는 '5월'을 잊고 지냈던 우리 가슴이 다시 '5월'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가 될 듯 싶다.

/mekim@kwangju.co.kr

### 시의회 이상동의원 "광주 학교 건물은 안전사각지대"

공공 시설물인 학교건물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상동 의원은 11일 시교육청 결산심사에서 "학교는 학생들이 평균 10시간 이상 거주하는 곳으로 타 시설물에 비해 고도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학교 건물은 법령상 시설물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정밀 안전 진단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내 초·중·

고교는 모두 286개로 이 가운데 94%인 269곳이 10년 이상 지난 노후건물이다. 현재 이 학교 건물은 교육청이 기술사를 통해 1년에 2차례 육안으로만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교량과 터널, 철도, 항만, 댐과 공항청사, 철도역사, 종합병원 등은 1, 2종 시설물로 지정, 6개월에 1차례 이상 정기점검 등을 하도록 돼 있으나 학교 건물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레비는 파병 '동명부대' 주둔지 방호 훈련

11일 오전 경기도 광주 특전교육단에서 이달 말 레비는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될 동명부대원들이 레비는 현지 주둔지에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방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1일 오전 경기도 광주 특전교육단에서 이달 말 레비는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될 동명부대원들이 레비는 현지 주둔지에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방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 "'일본은 없다' 타인 취재내용 무단 사용"

### 전여옥 의원, 오마이뉴스 상대 소송 패소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책 '일본은 없다'가 지인의 취재 내용과 아이디어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전 의원이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일본에 대한 책을 출간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받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그로부터 건네받은 초고의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

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책이 출간된 후 모 언론사 취재기자가 무단 인용 문제를 보도하자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하나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사장이 기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했다는 오마이뉴스 기사의 내용도 전체적으로 진실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인의) 초고를 본 적도 없다. 표절이라면 (지인쪽에서) 먼저 소송을 걸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항소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정치권 줄대기' '문건 유출' 집중 점검

###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 ... 8월부터 특별점검반 운영

정부는 연말 17대 대선을 앞두고 8월부터 11월까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와 문건유출 등 기강 문란 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통령 임기말 국정관리를 위해 복무관리·정책관리·예산관리 등 3대 중점

관리 분야를 설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 대선일정에 편승해 공무원들이 복무기강 문란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기강해이와 정치권 줄대기, 문건유출 등 기강문란 행태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연합뉴스

## 여름大특강 개강

★ 커빙(carving) 과일조각합식·소시초밥 수강생 모집 ★  
주3회 오전 10시/오후 4시

맛과 멋이 배아는 행복한 요리교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요리 (신선/가을/겨울)</li> <li>• 일본 요리 (신선/가을/겨울)</li> <li>• 프랑스 요리 (신선/가을/겨울)</li> <li>• 한국 요리 (신선/가을/겨울)</li> <li>• 빵 요리 (신선/가을/겨울)</li> <li>• 커빙 과일조각합식반 (4주 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금 : 이론수업 11시~1시</li> <li>• 월수금 : 실습수업 2시~7시</li> <li>• 화목토 : 강의실 7시</li> <li>• 화목 : 실습실 3시</li> <li>• 화목 : 음식실 7시</li> <li>• 화목토 : 국제도서관 10시~4시</li> <li>• 토 : 북아일랜드 10시</li> <li>• 주말오리 : 주일회 Free time</li> </ul>
--	--

재능기부 대안으로 참여 기회 제공 | 10월 1일부터 오아 카빙교육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 4주 과정 | 겨울수업부터 봄학기 입학까지 |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 \*

### 에스터원요리학원 (062)385-0723, 384-1884

위.시.공.포.대.출.소.양.공.전.학.원.유.한.지.선

## (株) 행복출판

상사(주) 행복출판은 오아 교육지원  
대상으로 영리·상용·교육·문화  
서비스를 국내·외 각 계층·계급을 포용하고  
최고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최상의  
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는  
다들 모르다... 꼭 보셔야 합니다.

### 최원수 1위 한국교육재정총회

최대를 경험하시니 소인 모집

10월 1일부터 (062) 527-3388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